

'지역 현안' 해결...혁신도시 기관-지역민 '맞손'

한전KPS,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단 구성...17건 사업안 중 2건 실행 한전KDN, 재생에너지로 텃밭 원격관리... '스마트팜' 나주시에 기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주민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

지역민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낸 일자리 창출 사업안을 실행에 옮기거나, 풍부한 기술력으로 주민 텃밭을 가꾸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전KPS는 최근 시민참여형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인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단 1기'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참여단 '워킹(Work-ing) 그룹'은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동안 고용 현안 해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에 나섰다.

시민 14명으로 구성된 '아이디어 그룹'과 지역 기관 및 전문가 5명이 모인 '전문가 그룹'은 일자리 창출안을 제안하고 평가, 홍보 등을 함께 해왔다.

'아이디어 그룹'은 광주·나주에 살고 있는 대학생 11명과 직장인 3명이 모여 만들어졌다. 이들은 지역일자리 현안을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안을 제안하고 수요자 의견을 전달했다.

각 기관 일자리사업 담당자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은 아이디어 그룹이 낸 사업안을 평가하고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일자리 수요에 직접적으로 맞닿은 20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50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다.

참여단은 먼저 지역 일자리 현안에 대한 의견을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받았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과 대면 회의를 병행했다. 소셜미디어(카카오톡)를 활용한 의견 교환은 상시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미래 인재 발굴 프로젝트', '시니어 복지 강사 양성 및 매칭 플랫폼', '나주혁신도시 공실 상가 창업 지원' 등 17건의 일자리 사업안을 만들어 냈다. 전문가 그룹의 1차 검토 결과 40점 이상을 얻은 사업안 9건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합동 멘토링 프로그램'과 '지역 과일 도시락 지원 사업' 2개안이 실행 과제로 채택돼 실제 추진될 방침이다.

공공기관 합동 멘토링은 공공기관 협직자들이 합동 멘토단으로 참여하며 청년 구직자를 상담하는 게 주요 골자다.

한전KPS는 나주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오는 10월까지 청년 구직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총 4기



나주시 빛가람동에 870㎡(263평) 규모로 조성된 공원 텃밭에는 한전KDN의 스마트팜 관수시스템이 적용됐다. <한전KDN 제공>

에 걸친 멘토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면접, 비대면 채용훈련 등을 위한 PC 등 기기 60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다른 선정작인 '과일 도시락 지원 사업'은 나주시 로컬푸드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들로 도시락을 만들어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역 학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환경 학교급식 수요

를 잃은 나주 농가 판로를 확대하고 도시락 포장작업에 장애인·고령 인력을 채용하며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전KDN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나주 빛가람동 공원텃밭을 가꿨다.

지난 15일에는 한전KDN과 나주시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팜 관수시스템 기부협약을 맺기도 했다.

한전KDN은 정부의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

인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관수시스템을 개발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나주시와 '신재생에너지 융합 노지형 스마트팜 실증연구' 협약을 맺어 빛가람동 공원텃밭에 실증을 추진하기도 했다.

텃밭 규모는 870㎡(263평) 정도로, 태양광·풍력 발전을 이용해 관수시스템을 운영해왔다.

한전KDN은 미래 영농기술 확산을 위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과 설비를 나주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설비를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며 영농 과학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에 기부될 스마트팜 관수시스템은 공원텃밭에 설치된 기상·토양센서를 통해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는 기술을 지녔다.

'스마트팜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해 물과 영양을 원격으로 자동 관리하면서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나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이뤄낸 그간 성과가 크다"며 "기존의 영농방식을 과학화한 도시형 스마트팜 활성화와 함께 지역발전 위한 다양한 실천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애로사항 듣는다

한전·에너지공단 접수채널 운영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9일부터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애로사항 접수채널'을 신설·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계통접속 관련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통용량(전원 계통의 공칭 용량)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지속적으로 설비를 보강하면서 계통 누적 접속대기율은 2018년 53%, 2019년 42%, 2020년 24%, 올해 2월 기준 22%로 개선되고 있기는 하다.

오는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8%

까지 올리자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충분한 계통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

이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산업협회, 풍력산업협회, 태양광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은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애로사항 접수채널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knrec.or.kr)에 개설됐다. 전력계통 연계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청 분야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송·변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배전), 계통접속 등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농식품유통교육원 '푸드플랜' 무료 강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은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푸드플랜의 이해' 온라인 강좌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총 4주 과정으로 9월과 11월 2회 진행된다. 회당 50명씩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 중이며, 일정 기간 수강하면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강의는 '식생활과 푸드플랜' 등 총 6과목으로 구성됐다.

학계, 소비자 유통 현장전문가 등 분야별로 구성된 강사진이 정책과 현장실무를 가르친다.

교육원은 지난 2019년부터 '푸드플랜 실행전략 수립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푸드플랜 계획 수립 지원을 받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푸드플랜 담당 공무원, 급식센터 관계자, 시민활동가 및 농업종사자 등 4인 1조로 수강생이 구성된다.

교육원의 '푸드플랜 아카데미'는 지난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주최한 '공공기관 HRD콘테스트'(교육과정 분야)에 출품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상을 받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3년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4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00개 지자체의 푸드플랜 계획수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유통교육원 누리집(edu.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 '고고 챌린지' 운동 동참



주명현(가운데) 사학연금 이사장이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고고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사학연금 제공>

에코백 기부·녹색제품 구매 등 다양 에너지 감축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주명현 이사장이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고고 챌린지' 운동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 일회용품 줄이기, 에코백(천가방) 지역사회 기부, 종이 털 쓰는 '페이퍼리스' 실천, 친환경 전기차 사용 확대, 충전소 설치 등을 펼쳐 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사학연금은 환경부 주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우수기관'에 지난 2017~2019년 3년 연속 선정됐다.

주 이사장은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운동에 참여했다. 다음 주자로는 최일동신대학교 총장,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오병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추천했다.

주 이사장은 "사학연금은 정부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고자 '안전·친환경 책임경영 강화'를 전략과제로 잡았다"며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ESG' 관련 투자상품 펀드비중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전력데이터 활용' 신서비스 개발 경진대회 개최

6월14일까지 신청 접수

한전KDN이 오는 6월14일까지 '전력데이터 신서비스 개발 경진대회'를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세 번째 개최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 광주과학기술원 등 에너지 관련 기관들과 공동 주관한다.

참가 대상은 일반인과 학생,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이다. 오는 6월14일까지 대회 누리집(contest.kepco.co.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참가자는 한전 아트센터(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데이터 공유센터'에서 전력데이터를 활용해 2개월 동안 서비스 개발을 진행한다. 오는 8월26일에는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진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총 4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신청 서비스는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 등록돼 사업화 기회를 얻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020~2023년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4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00개 지자체의 푸드플랜 계획수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유통교육원 누리집(edu.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